

길림—몽골 철도관광 융합자원 설명회 개최

24일, 중국철도심양국그룹유한회사 연길차무단에서 주최한 길림—몽골 철도관광 융합자원 설명회가 연길에서 열렸다. 백성차무단, 흥안맹 문화관광체육국, 연길차무단, 연변주문화라지오펠레비존방송및관광국 관련 책임자 포함 50여명이 회의에 참가했다. 최근년간 중국철도심양국그룹유

한회사에서는 철도 자원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지역 문화관광부분과 협력해 선후로 ‘룡정호 민속 전용열차’, ‘아일산호’ 등 관광열차를 운행했다. 이에 힘입어 최근 연길—백성구간 직행열차를 개통했는바 연선지역의 관광객들은 동쪽에서 진달래를 감상하고 서쪽에서 초원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연길차무단 부단장 리도용은 “이번 설명회는 고속철도를 뉴대로 길림과 몽골 두 지역의 관광자원을 련결해 ‘철도 + 관광’ 모식으로 관광시장의 교류와 발전을 부단히 추진하는 데 무게를 두었다.”면서 “설명회를 통해 정부, 철도부문, 관광기업 3자가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광시장에서의 철도운수의 역할을 일층 공고

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연변, 흥안맹, 흑호트, 아일산, 송원, 대안 등 지역의 문화관광부문 책임자가 선후하여 량질의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연변주문화라지오펠레비존방송및관광국과 흥안맹문화관광체육국이 전략적 협력 협의를 체결했다. / 연변뉴스넷

따스한 봄에 즐기는 스키... 할빈 빙설 스포츠 ‘핫플’로 떠올라

할빈시가 사계절 내내 빙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할빈 빙설대세계의 몽환빙설관에서 향향 출신 두 중학생이 령하의 추위를 뚫고 아름다움에 넋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반짝이는 얼음조각을 감상하고 있다. “모든 작품이 아주 정교해요. 특히 동북호랑이는 진짜같아요.” 련휴를 보내기 위해 이곳을 찾은 그들의 설명이다. 이들도 사계절 빙설의 매력을 느끼기 위해 중국 빙설 도시 할빈으로 향하는 관광객 대렬에 합류했다.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 봄기운이 완연하지만 할빈은 혁신을 통해 사계절 빙설 명소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빙설 테마파크 몽환빙설관은 지난 2월 27일 재개장했다. 이곳은 동계아시안게임 디자인과 세계 문화 테마를 결합한 정교한 조각 작품을 보존하기 위해 령하 10도의 낮은 온도로 유지되고 있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휴가를 보낼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열설기적(热雪奇迹)의 한 직원은 최근 들어 스키장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었다며 겨울 스포츠를 체험하는

것이 봄 트렌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각기 다른 경사도를 갖춘 8개 트랙과 8만평방미터 규모의 스키장에 인파가 몰려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 한국, 러시아 프로 스키 선수들도 이곳을 하계 훈련기지로 사용하고 있다.” 직원은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슬로프 덕분에 모두가 빙설 스포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풍부한 빙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흑룡강성은 최근 수년간 할빈 빙설대세계와 빙설 도시 등 유명 빙설관광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육성해왔다. / 신화사

‘5.1’ 련휴, 입국 려행 주문량 173% 증가



‘5.1’ 황금 련휴를 앞두고 현재 국내선 항공권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또한 국내 려행 외에도 ‘5.1’ 련휴 기간 국제선 항공권 예약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경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출범한 ‘구매 즉시 환급’ 쇼핑 조치도 입국 려행 열기를 고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온라인 려행 예약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1’ 련휴 기간 입국 려행 주문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했으며 주요 관광객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에서 오는 방문객들이다. 한편 중단거리 해외 려행지도 ‘5.1’ 련휴 기간 중국 관광객들의 인기 선택지로 떠올랐다. 항공 려행 분석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4월 24일 기준 ‘5.1’ 련휴 기간 출입국 항공권 예약량은 103만장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증가한 수치다. / 국제방송

천지와 가장 가까운 장백산 남쪽풍경구 5월 1일 재개방



장백산 남쪽풍경구가 2025년 5월 1일 재개방된다. 장백산 남쪽풍경구는 천지와 가장 가깝고 360도 파노라마로 분화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풍경 구이기도 하다. 장백산 남쪽 비탈을 찾는 관광객은 일반적으로 남쪽 비탈 천지의 독특한 풍경을 보기 위해서이다. 북쪽과 서쪽 풍경구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관람할 수 있는데 이곳은 지대가 비교적 낮아 천지 수면과 가장 가까운 풍경구로 천지의 전경을 더욱 선명하고 완전하게 내려다볼 수 있다. 장백산 남쪽풍경구는 또 가장 원시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데 북쪽 비탈의 완벽한 시설, 서쪽 비탈의 전형적인 지형적 특징에 비해 남쪽 비탈은 개발이 비교적 늦어 가장 원시적이고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있어 장백산 생태계에서 가장 완전한 풍경을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 장백산 남쪽풍경구에서는 악화쌍폭(岳桦双瀑), 압록강대협곡(鸭绿江大峡谷) 등 명소도 관람 가능하다. 티켓 구매 주의점: 1. 티켓 가격: 장백산 남쪽풍경구 정가 입장료 105원, 친환경버스 85원(왕복 포함). 2. 티켓 구매 방법: ‘장백산’ 위챗 공식계정이나 미니프로그램에서 ‘장백산 일기유(一机游, 휴대 폰 한대로 여행을 즐기자)’를 검색, 공식 티켓 구매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다. 3. 개표시간: 8:00-13:30 4. 장백산관광지는 실명제를 실행하고 시간대별로 예약, 입장하며 온라인 티켓이 매진되면 오프라인에도 잔여표가 없다. 5. 장백산관광지 문의 및 도움요청 전화: 4000006789, 도움요청 접수 시간은 매일 7:40부터 19:00까지이다. / 인민넷

룡정시 첫 몰입식 국풍 명소 11월말 완공 예정



길림성중백문화관광투자유한회사는 비암산문화관광풍경구에 숙박, 문화체험, 레저오락을 일체화한 국풍 문화관광 대상인 룡문양심객잔을 건설하게 된다. 룡문양심객잔은 비암산풍경구의 ‘야간경제’ 공백을 메우고 미식, 연예와 민박을 융합시켜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평균 4시간에서 2일로 연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룡문양심객잔은 룡정시에서 최초로 건설하는 몰입식 국풍 명소로 된다. / 김영화기자

근대 우리 나라 경제 중심 도시—무한

무한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수많은 이야기가 깃들어있는 유명한 문화의 도시이자 짙은 형조문화의 특색을 띤 유명한 력사의 도시이다. 이곳에서 만나는 장강과 한수강, 그리고 곳곳에 보석처럼 산재한 크고 작은 호수들이 대법한 기질의 도시 무한에 부드러운 느낌을 안겨주어 경치 또한 아름답다. 호북성 성도인 무한은 장강과 한수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화중지역의 물자 집산지로 예로부터 ‘주변의 9개 성을 련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였다. 무한은 ‘무한 3진’의 통칭이다. ‘3진’은 장강과 한수강에 의해 분류된 무창과 한구, 한양 세 지역을 말한다. 그중 한구는 가장 변화한 상권이자 화중지역 상품 집산지이고 무창은 대학교가 집중된 문화구역이자 무한의 현대 도시 문화를 잘 보여주는 곳이다.



무한이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개발단지가 들어선 한양은 무한의 미래를 대변한다. 따라서 무한의 대부분 명소는 모두 무창과 한양에 집중되어있으며 이 두 지역은 ‘강의 도시’ 무한의 아름다운 경치와 다양한 풍속, 무한한 매력을 보여주는 대표이다. 무한성은 최초로 1,800여년전 동한때에 축성했다. 당시 오늘의 한양에 성을 쌓았는데 여남(汝南), 둔양(沌阳)이라 불리다가 수나라 초반에 한양으로 개명해 오늘날에 이른다. 무한의 고성들은 모두 방어에 편리한 목적으로 강을 마주한 산자락에 축성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런 고성은 모두 력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그 모습을 찾을 수 없다. 한구는 원래 성을 쌓지 않다가 1600년대에 이르러 홍수 방지 목적으로 강가에 언제를 쌓았다. 1800년대에 농민 봉기군인 태평군이 언제를 기반으로 한구보를 축조했으며 1900년대에 이르러 한구보를 철거하고 거리를 조성했는데 그 거리가 바로 지금의 중산대로이다. 력사적으로 무한은 상업의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동서남북으로 사통팔달의 요충지에 위치한 무한은 예로부터 중원과 남방, 장강 종류와 하류 지역간 경제교류와 문화융합의 중심이었다. 1,600여년전에 무한은 벌써 유명한 항만이었고 1,000여년전에는 상

업이 번창하고 수로 교통이 발달한 도시로 부상했다. 500여년전 한구가 흥기하면서 ‘십리에 돛이 숲을 이루고 만가구의 등불이 밤을 밝히는’ 당시 중국 4대 도시중 하나였으며 화중지역 물자 집산 중심이 되었다. 장강 기슭의 강한로에서 황포로, 중산대도까지 부지 1.8평방키로미터의 랑육지역이 조성되어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다. 길이 1,600미터, 너비 20미터의 이 거리는 백년의 력사를 보유한 무한의 유명한 상업거리이다. 이 거리는 기존의 구도를 보존한 동시에 근대의 서양식 건축물 500여채를 거느린다. 그중 50여채가 ‘무한시 력사 우수 건축 보존’ 리스트에 선정되었다. 무한은 경제가 번영할 뿐만 아니라 인문도 아주 풍부하다. 황학루는 무한의 사산(蛇山)에 높이 솟아 ‘천하의 절경’을 이룬다. 높이 51미터의 황학루는 겹으로 보기에는 5층이지만 내부는 9층으로 되어있고 등정이 가능해 정상에 올라서면 무한 3진의 아름다운 경관이 한눈에 안겨온다. 황학루는 처음에 군사적 방어 목적으로 축조했으나 당나라 때에 이르러 점차 유명한 명승이 되었으며 최화가 시〈황학루에 올라〉를 쓰면서 더욱 명성이 자자해졌다. 한양의 구산 산자락에 위치한 고

금대는 복송 때 거문고의 명수 백아와 그의 절친인 종자기를 기념하기 위해 축조한 것으로 백아대라고도 부른다. 황학루, 청천각과 함께 무한의 3대 명승으로 불리는 고금대는 중국의 정원 조성에서 사용하는 ‘차경’ 기법을 활용, 구산의 산수를 교묘하게 접목시켜 광활하면서도 심원한 예술적 경치를 보여준다. 메인 건물외에 정원과 숲, 화원, 다실 등 다양한 경관을 아우르는 고금대는 그 배치가 교묘하다. 전각 앞에 돌로 쌓은 네모난 금대는 백아가 거문고를 타던 곳이라고 전해진다. 청천루라고도 하는 청천각은 구산의 동쪽 기슭에 위치해 북쪽으로 한수강을 마주하고 동쪽으로 장강을 사이두고 황학루를 바라본다. 명나라 때 한양지부의 행궁으로 신축되었다가 1984년에 개축한 청천각은 당나라 최효의 시〈황학루에 올라〉중에서 “맑은 내물 저쪽에 한양의 나무들이 력력하고 봄풀은 앵무주에 무성히 자라노다.”라는 시구에서 이름을 취했다. 17.5미터 높이의 청천각은 목조 건물을 모방한 철물구조에 전통적인 기법으로 채색의 그림을 그리고 정교한 조각을 새겼다. 2층으로 된 청천각은 ‘산세에 의해 단을 조성하고 그 위에 투각을 짓는’ 초나라 사람들의 웅장한 기상과 문화적 분위기를 / 국제방송